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al Display Rule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한 유진
교수 유안진

Dep.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Han, Eugene
prof. : Yoo, An J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 고찰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arental emotion regulation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al display rules. 31 boys and 29 girls of the first and fourth grades and their parents were selected for the subject. Sixty children were interviewed on eight interpersonal conflict situations and parent completed the PACES(Saarni,1985) separatel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al display rules increased with age. 2) Children's primary justification for using emotional display rules was self-protective one. Girls used more often prosocial justification than boys. 3) Parental emotion regula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contexts: a child might cause another person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and a child didn't cause another person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4) Parental regulation was differed by children's age in the context that the child might cause another person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5) Father's regulation was differed by children's sex in the context that the child might cause another person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6) Maternal regu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motional display rules in the context that the child might cause another person substantial emotional distress.

I.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들어 정서의 사회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정서적 경험이 유발되는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고 정서를 관계 속에서 연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정인과 마찬가지로 아동도 타인과 상호작용할 때 타인이 나타내는 정서에 주의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정서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 행동을 결정한다.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아동은 다양한 정서 상태를 표현하거나 표현되어서는 안되는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는 정서 표현 규칙을 점차 학습하게 된다(Masters & Carlson, 1984).

정서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에 맞는 적절한 반응과도 관련되므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된다.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개인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의 이정표라고 할 때 정서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발달에 선행되는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표현 행동을 규제해야 하는 사건이 매우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표현 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많지 않았다. 지금까지 행해진 몇몇 연구(최정운, 1994; Cole, 1986;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1984; Underwood, Cole, Herbsman, 1992)들도 다른 정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아동기의 보편적이고 안정적인 전이에 초점을 맞추는 연령 변화만을 강조하여 왔다. 따라서 변화를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을 탐색하는 개인차 연구는 소홀히 하였다.

가족 생활에서 아동이 겪는 정서적 경험은 개인차의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은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의 특성에 민감하고 어려서부터 이러한 특성을 부호화한다(Davis, 1986; Harris, 1994). 가족 생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실제는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 표현을 경험하게 하고 아동

의 정서 탐색과 이해를 장려한다. 아동의 정서 표현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화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몇몇 연구(Davis, 1986; Harris, 1994)가 있지만, 아직까지 정서 표현 규칙과 사회화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극히 소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의 정서 표현 규칙과 부모의 정서 규제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없으므로 이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인 정서 표현을 장려하는 서양과는 달리 때와 장소, 함께 한 사람의 지위에 따라 정서 표현의 규제를 많이 요구하는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정서 규제가 서양과는 달리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서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와 정당화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2.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정서 표현 규칙 이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정서 표현 규칙 사용에 대한 정당화는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 규제는 하위상황(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별,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1.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 규제는 하위 상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2. 부모의 정서 규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3. 부모의 정서 규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정서 표현 규칙 이해는 부모의 정서 규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주요 연구 변인에 해당하는 다음의 용어들은 선행연구의 고찰에 따라 연구자가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① 부모의 정서 규제

자녀의 정서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과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의 정서 표현을 규제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의미한다.

② 정서 표출 규칙

한 문화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학습하는 정서 표현 방법으로 문화나 성, 상황 같은 사회적 맥락이 요구하는 특정 표현 양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③ 정당화

정서 표출 규칙을 사용하여 내재된 정서와 표현된 정서를 변별한 후, 자신의 판단 근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II. 관련연구의 고찰

1. 정서 표출 규칙

정서 표출 규칙 발달에 관한 연구는 아동이 표출 규칙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관심을 갖고 시작되었다. Saarni(1979)는 6, 8, 10세의 대상 아동에게 정서 표현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대인간 갈등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4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결과 10세 아동은 표출 규칙을 정확하게 사용한 반면, 6, 8세 아동이 정서 표출 규칙을 지적하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Cole(1986)의 실험 연구에서는 선물을 개봉한 3-4세 여아들도 실험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더 많은 실망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학습은 이미 3~4세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정서 표출 규칙의 사용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6세가 되어야 실제적인 정서와 겉으로 드러난 표정을 구별하여 의도적으로 정서를 조절하기 시작한다(Gross & Harris, 1988).

정서 표출 규칙의 연구는 연령과 관련된 발달 경향이 주요한 관심사였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가 점차 발달한다는 많은 증거들(최정윤, 1994; Gnepp & Hess, 1986; Saarni, 1979, 1984; Underwood, Coie, Herbsman, 1992)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들(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도 보고되고 있다.

한편, 연령과 함께 성별도 정서 표출 규칙 연구에서 주로 탐색되어온 변수이다. Saarni(1984)의 '실망스러운 선물' 패러다임에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을 때 여아는 남아보다 더 긍정적인 표정이나 언어적 행동을 보였다. Davis(1996)는 표출 규칙에 성차가 존재하며 그 차이는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억누르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연구 결과(Friend & Davis, 1993; Gnepp & Hess, 1986; Harris, Donnelly, Guz, & Pitt-watson, 1986; Saarni, 1979)가 있어 정서 표출 규칙의 성차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준다.

정서 표출 규칙 사용에 대한 아동의 정당화를 연구한 Underwood, Coie 및 Herbsman(1992)은 표출 규칙 사용을 보고한 8, 10, 12세 아동의 41%가 구체적인 정당화 원인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제공한 경우에는 사회적 규범유지와 부정적 결과 회피가 그 이유였다고 보고하였다. Saarni(1981)는 표출 규칙의 동기에 따라 친사회적 표출 규칙과 자기보호적 표출 규칙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연령단계의 아동들이 관계의 보호나 행동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표출 규칙을 보고하였다. 반면, 최정윤(1994)은 아동의 정당화가 사회적 규범 유지, 사회적 관계 유지, 부정적 결과 회피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어 다소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성별은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연령 변수만을 분석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2. 부모의 정서 규제

부모는 아동이 그 또래에 적합한 정서 표현을 하도록 사회화한다. 여러 가지 정서의 이유와 정서의 결과에 대해 부모가 이끌어가는 대화는 부모-아동 상호작용에서 아동의 정서에 대한 자각을 강조하고, 정서적 정보에 주의하고 처리하도록 동기화한다. 즉, 부모와 아동의 정서에 관한 가족의 대화는 정서에 관한 아동의 사회인지를 발달시킨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그러나 정서 사회화를 다룬 연구들은 어머니의 정서적 규제가 아동의 높은 수준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본 반면, 아버지의 양육 태도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주로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연구(Haviland, 1982; Miller & Sperry, 1987) 하여 왔다. 그러나 Gardner(1982)는 어머니는 정서 반응과 내적 감정의 규제를 강조하는 반면, 아버지는 크고 작은 감정의 동요를 규제하는 자기 규제의 모델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상이한 정서 규제 방법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정서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는 생후 수 개월부터 시작된다. 2~7개월된 영아의 어머니들은 영아의 흥미, 행복, 놀람과 같은 정서는 모방하여 강화하였으나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모방하지 않았다(Malatesta & Haviland, 1982).

이보다 약간 더 나이가 많은 걸음마기 아동의 부모들은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다. Miller와 Sperry(1987)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 노동자 가정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 가치관에 일치하는 표출 규칙을 장려하였다. 예를 들어 또래가 장난감을 빼앗거나 때릴 때 어머니들은 아동에게 자기방어로서의 공격성과 분노 표현을 격려했다.

학령전 아동들은 그들 문화에 적합한 정서 표출 규칙에 순응하고, 이러한 규칙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한다(Harris, 1989). 이러한 문화의 전달은 아동이 학령기에 들어서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학령기 아동의 연령증가에 따른 부모의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사회화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Malatesta와 Haviland(1982)는 어머니가 생후 1년부터 여아와 남아의 정서 표현에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였으며 Banerjee와 Eggleston(1983; Davis, 1986에서 재인용)은 부모가 여아에게 정서적 규제를 더 많이 기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딸보다는 아들의 정서적 규제를 더 격려한다는 연구(Block, 1979)와 여아에게 더 반응적이라는 연구(Fabes, Eisenberg, Karbon, Carlo, Speer & Benzweig, 1994)가 있어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3.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부모는 아동에게 직접적 훈육과 강화, 처벌을 통해 어떤 정서 표현이 용납되고 언제 이러한 정서가 표현되는지 가르친다.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정서 표현을 규제하도록 부모가 요구하는 것은 얼굴 표정을 효과적으로 감추도록 한다(Buck, 1984).

부모의 정서에 관한 양육 태도와 3, 6학년 아동의 정서 반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Fabes, Eisenberg, Karbon, Carlo, Schaller, & Miller, 1991)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아동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에 대한 동성 부모의 규제는 아동의 기질적, 상황적 공감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동성 부모가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규제할수록 아동은 공감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적절한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규제는 아동의 조망수용과 타인-지향적 관심을 장려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규제는 정서 표현에 대한 아동의 자각과 주의를 증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동의 정서 표현에 미치는 가족 사회화 실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회화 실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아버지의 정서 규제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부모의 정서 규제가 정서 표출 규

칙 이해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D 초등학교를 다니는 1학년, 4학년 아동과 그들의 부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총 1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한 결과 148부의 질문지가 회수되었고, 이 중 부모가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 편부모, 부실기재를 제외하고, 아동의 연령과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아동 60명과 그 부모 12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의 평균연령은 6.11세이고 4학년의 평균연령은 9.2세이다.

〈표 1〉 연구대상지의 분포

	남	녀	합계
6세 (초등학교 1학년)	15	15	30
9세 (초등학교 4학년)	16	14	30
합계	31	29	60
아버지		60	
어머니		60	
합계		120	

2. 연구도구

1) 부모의 정서 규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 규제를 측정하기 위해 Saarni(1985)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 표현에 대한 부모의 양육 태도 척도(Parental Attitude toward Child Expressiveness Scale: PACES)의 총 20문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안하였다. PACES는 아동의 정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PACES-Hurtful)과 아동의 정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으나 아동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PACES-Self)의 두가지 하위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자는 예비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과 연구 목적에 맞게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각 하위 차원당 10문항으로 만들었다. 이 조사도구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정서 규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지수는 Cronbach' α 가 .68이다.

2) 정서 표출 규칙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Harris 등(1986)이 사용한 8가지 이야기 도구를 변안하였고 예비조사와 선행연구(Gnepp & Hess, 1986; Saarni, 1979; Underwood et al., 1992)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아동이 정서 표현을 규제하기에 적절한 갈등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8개의 이야기 중 4가지는 긍정적 정서를 나머지 4가지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었다. 아동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이야기에 해당하는 그림 카드 8장과 표정카드 3장(기분좋은 표정, 무표정, 기분 나쁜 표정)을 여아가 주인공인 여아용과 남아가 주인공인 남아용으로 미술 전공자의 도움을 받아 제작하였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언어적 반응과 얼굴 표정에 대한 대상 아동의 보고는 선행연구(Underwood et al., 1992)의 분석기준을 기초로 해, 숨겨진 정서와 표현된 정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상황에 맞는 올바른 정서를 표현한 경우에는 1점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따라서 한 아동당 0~8점까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정당화는 정서 표출 규칙을 사용하여 1점을 받은 아동의 반응 원인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Saarni, 1981)와 예비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1) 자기보호적 2) 친사회적 중 하나로 범주화하였다.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에 대한 정당화는 두 실험자에 의해서 채점되었는데, 두 실험자는 98%의 일치도를 보였으며, 불일치된 내용은 협의를

1) PACES는 아동이 분노(4문항), 고통(3문항), 공포(3문항), 불안(3문항), 행복(3문항), 흥미나 호기심(3문항), 혐오(1문항)의 정서를 나타내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해서 해결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를 위한 부모용 질문지와 아동용 연구도구 구성을 위한 예비조사를 4월 13일부터 2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반응률이 낮거나 문항간 신뢰도가 낮은 정서 규제 질문지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아동용 연구 도구의 경우에도 1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는 쉽게 조정하여 학년간 난이도 차이를 없앴다.

본조사는 5월 25일~29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먼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된 질문지 중에서 아동의 연령과 성비를 고려하여 60명을 선정하였다. 실험은 4명의 실험자들이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자들은 조사시작전에 조사내용과 실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비조사시 아동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하였다.

실험자가 있는 방에 아동이 들어오면 인사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한 후, 실험자는 8개의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이 때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의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을 제시하였다. 성별 효과를 규제하기 위하여 이야기 속 주인공의 이름을 남아에게는 민수, 여아에게는 민아로 바꾸어 들려주며 이야기 제시 순서의 효과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제시하였다.

각 이야기는 대상 아동이 이야기를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야기의 주요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아동이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 경우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완전히 이해했는지 확인한 후 본 연구의 질문을 시작하였다.

내적으로 경험되는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되는 정서가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주인공이 실제로 경험하는 내적 정서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 후 외현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반응과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때 표정카드를 함께 제시하였다. 정서 표출 규칙을 사용한 경우, 각각에 대한 반응 원인을 질문하였다. 이때 아동의 반응은 응답

지에 실험자가 기록하였다.

부모의 정서 규제 질문지는 학교에서 배부한 후 아동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며, 응답 후 다시 가져오도록 하여 수기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질문지를 각자 따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 표출 규칙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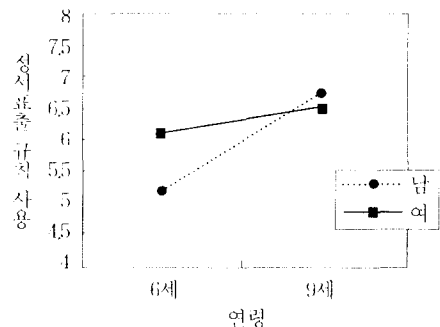
먼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대상 아동의 평균점수는 6.14이며, 6세 남아가 5.20으로 가장 낮았고 9세 남아가 6.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점수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주효과($F(1,118) = 1.61$,

<표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 표출 규칙 이해점수
평균(표준편차)

	6세남	6세여	9세남	9세여
정서 표출	5.20	6.13	6.71	6.50
규칙 이해	(1.54)	(1.43)	(1.91)	(1.26)



<그림 1>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 표출 규칙 이해의 상호작용 효과

P>.05)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미(F(1,118)=10.67, P<.01)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F(1,118)=3.95, P<.05)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아에 있어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아는 6세에서 9세 사이에 급격한 증가를 보였다.

2.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 표출 규칙 사용의 정당화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사용에 대한 정당화 유형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정당화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밝혀보았다.

정서 표출 규칙 사용에 대한 정당화는 자기보호적 범주와 친사회적 범주로 유형화하였다. 아동의 연령과 성별로 나누어 본 정당화 사용의 전반적인 빈도와 비율은 표 3과 같다.

아동들은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친사회적 정당화 범주보다 자기보호적 정당화 범주를 더 많이 사용(52.3~63.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인 6~9세의 아동이 정서 표출 규칙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야단맞을까봐, 친구들이 놀릴까봐, 창피하니까”와 같이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거나 자존심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친사회적 정당화 범주의 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6세 경우, 여아(25.6%)는 남아(9.4%)보다 전체 정당화 중에서 친사회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9세의 경우에도 남아(21.0%)보다

여아(33.3%)가 “친구가 속상할까봐, 친구를 놀리면 안되니까”와 같은 친사회적인 이유를 더 자주 제시하였다.

정서 표출 규칙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음에서는 정서 표출 규칙 이해에 대한 정당화 유형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변량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자기보호적(F(3,118)=2.78, P<.05) 범주와 친사회적(F(3,118)=7.53, P<.001) 범주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표 4>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당화 유형의 변량분석

정당화	연령(성)	평균(표준편차)	Duncan	F값
자기 보호적	6세(남)	3.26(.44)	a	2.78*
	6세(여)	3.00(1.31)	a	
	9세(남)	4.35(1.23)	b	
	9세(여)	3.50(.84)	ab	
친사회적	6세(남)	4(.48)	a	7.53***
	6세(여)	1.33(1.41)	bc	
	9세(남)	1.29(1.35)	b	
	9세(여)	2.00(.74)	c	

* P <.05, ** P<.01, *** P<.001

표 4에서 보듯이, 9세 남아가 6세 아동보다 정서 표출 규칙을 자기보호적 이유에 근거하여 더 많이 사용하였다. 자기보호적 이유는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거나 자존심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9세 남아가 6세 아동보다 자기보호적 이유를 더 자주 언급한 것은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를 표현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더 잘 고려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친사회적 이유는 연령과 관계없이 남아보다 여아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함을 보인다.

<표 3> 아동의 연령과 성별로 살펴본 정당화의 빈도와 백분율

연령(성)	빈도(백분율)		
	자기보호적	친사회적	설명못함
6세(남)	50(58.1)	8(9.4)	28(32.5)
6세(여)	45(52.3)	22(25.6)	19(22.1)
9세(남)	72(63.2)	24(21.0)	18(15.8)
9세(여)	49(52.7)	33(33.3)	11(11.8)

3. 부모의 정서 규제

1) 상황(타인피해 상황,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는 상황)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쌍측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상황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 차이

	타인에게 피해안됨 M(SD)	타인에게 피해됨 M(SD)	t
아버지	23,07(3,34)	29,05(4,07)	-9,46***
어머니	22,31(3,24)	29,20(2,85)	-15,00***

* P <.05, ** P<.01, *** P<.001

표 5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모두 정서 규제가 발생하는 상황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의 정서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서표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더 많은 정서 규제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정서 규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6> 아동의 연령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 차이

	6세	9세	t
	M(SD)	M(SD)	
아버지			
타인에게 피해안됨	21,20(3,40)	23,93(3,11)	-2,06*
타인에게 피해됨	29,30(3,77)	28,90(4,37)	.38
어머니			
타인에게 피해안됨	21,43(3,15)	23,33(3,15)	-2,34*
타인에게 피해됨	29,03(2,69)	29,29(3,00)	-.35

* P<.05, ** P<.01

그 결과 표 6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적절한 정서 표현 상황에서 연령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정서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아동이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조절하도록 더 많이 규제하였다.

아동의 정서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정서 규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적절한 정서 표현 상황에서 성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2.67, p<.01$). 즉, 남아 집단은 평균 24.19, 여아 집단은 평균 21.93으로 아버지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규제하도록 훈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는 성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두가지 하위상황에서 모두 성별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는 정서 규

<표 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 차이

	남	여	t
	M(SD)	M(SD)	
아버지			
타인에게 피해안됨	24,19(3,41)	21,93(2,92)	2,67**
타인에게 피해됨	29,56(4,07)	28,59(4,05)	.94
어머니			
타인에게 피해안됨	22,71(3,54)	22,00(2,94)	.85
타인에게 피해됨	29,06(3,32)	29,28(4,05)	-.29

* P<.05, ** P<.01

제에 있어서 아들과 딸에게 다른 양육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정서 규제에 있어서 아동의 연령, 아동의 성별, 부모의 성별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4.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동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 상황에서, 아버지의 정서 규제는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반면 ($r=.04, p>.05$),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와 유의한 정적인 상관($r=.42, p<.001$)을 나타내었다. 즉, 어머니가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하도록 규제할수록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내적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된 정서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 반응을 결정하였다.

<표 8>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와 정서 표출 규칙 이해와의 관계

	타인에게 피해안됨	타인에게 피해됨
아버지	.0441	.1195
어머니	.4283***	.1776

* $P<.05$

그러나, 아동의 정서 표현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논의하기도 한다.

첫째, 남아와 여아 모두 9세 아동이 6세 아동보다 정서 표출 규칙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Cole, 1986; Harris, 1989)들과 일치한다. 정서 표현의 조절은 정서의 원인을 알고 자신과 타자간의 정서 경험을 구별하여 상황에 적절한 지식을 수행하는데 관련된 사회 인지 능력을 요구한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6세 아동은 사회적 경험이 다양하지 못하다. 반면, 4학년인 9세 아동은 또래, 학교, 학원 등으로 사회적 경험과 관계망이 다양해지며 사회적 맥락과 성인의 기대에도 민감해지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 사회와 문화가 요구하는 정서 표출 규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서 표출 규칙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경험이 증가하고 인지능력이 함께 발달(Harris, 1989; Saarni, 1989; Zeman & Garber, 1996)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아동들은 정서 표출 규칙 사용에 대한 이유로 친사회적 범주보다 자기보호적 범주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결과는 모든 연령 단계의 아동들이 관계의 보호나 행동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는 표출 규칙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Saarni, 1979)와 일치한다.

자기보호적 범주는 성별에 관계없이 6세 아동보다 9세 아동이 더 많이 사용한다. 자기보호적 범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하거나 자존심 유지를 위해 정서 표출 규칙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9세 아동이 6세 아동보다 자기보호적 이유를 더 자주 사용한 것은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를 표현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더 잘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적 경험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적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친사회적 범주는 연령에 관계없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여아들이 남아들에 비해 타인과 조화로운 사회적 관계의 향상을 중요시(Putallaz & Sheppard, 1982)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 표현을 더 많이 규제한다. 이는 선행연구(Saarni, 1985)와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의 부모도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정서 표현을 더 많이 규제하였다.

네째,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아동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 표현을 더 많이 규제한다. 이와는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두 연령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이란 점과 부모의 정서 규제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이 자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상황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를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다. 학령 전과는 달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 사회의 관습과 규칙을 따르게 하는 사회적 압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정서 표현에 대한 압력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은 아직 사회적 상황에 맞는 정서 표현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서 표현에 대해 더 구체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규제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연령이 높아지도록 규제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추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자녀 연령에 따른 부모 규제의 정도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학령전 아동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연구가 요망된다.

다섯째, 어머니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정서 규제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딸보다 아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서를 더 조절하도록 훈육한다. 이는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양육 태도가 평등한 반면, 아버지는 아들과 딸의 정서 표현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며 딸보다는 아

들에게 정서 규제를 더 한다는 선행연구(Block, 1979; Fabes et al., 1991)와 일치한다. 또한, 이는 남아와 여아의 정서 표현에 대한 상이한 사회화 경로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의 정서 표현이 억압되고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사내는 울면 안된다. 아파도 그 정도는 감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남자의 성억함에 기초한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른 양육 태도(Jaffe, 1987)를 보이므로, 딸보다는 특히 아들에게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하도록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어머니가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는 부적절한 정서를 조절하도록 규제할수록 아동은 내적인 정서와 외적으로 표현된 정서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사회적으로 적절한 정서 반응을 결정하는 정서 표현 규칙을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부정적 정서 규제에 대한 부모의 강조가 아동의 자기 감독과 관계가 있으며, 자기 감독의 경향은 자신의 정서 표현이 시기와 상황에 얼마나 적절한지 검토하여 적절한 정서 표현을 하도록 도와준다(Fabes et al., 1991)는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런 결과는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 표현을 억압하거나 규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조절하도록 장려하는 훈육이 아동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서 발달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다양한 개인차 변수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가족의 표현성이 높고 긍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 규제는 정서 표현 규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준다(Saarni, 1985). 하지만, 가족의 정서 표현성이 낮고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 표현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아동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내면화한 불안이나 고통반응을 조장할 우려(Buck, 1981)가 있다. 따라서 정서 규제와 정서 표현 규칙과의 관계는 가족내의 정서 표현성, 아동의 기질, 공

감, 정서성 등의 다양한 변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성부모가 부적절한 정서 표현을 규제할수록 아동의 정서 이해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Fabes et al., 1991)와는 달리, 부모의 정서 규제와 정서 표출 규칙 이해와의 관계를 살펴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만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함께 연구한 우리나라의 연구(박성연, 1998)에서 서구에 비해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머니의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아버지의 경우 실제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적어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발달에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은 아버지와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해 봄으로써 확실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반응을 실험자가 응답지에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실험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아동의 반응이 누락되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녹음기를 사용하여 모든 반응을 녹음하는 방법이 좋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정서 규제 척도(PACES)의 신뢰도 지수가 Cronbach' α = .68로 낮은 점을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질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실제 규제 행동이 아니라 태도를 측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동의 경우에도 가상상황에서의 정서 표현 조절에 대한 지식을 물어보는 것이므로 실제 정서 표현을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가 유발되는 실제 상황에서 상호작용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 표현을 관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정서적 훈육과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 간의 관계만을 입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 변수와 아동 변수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적고 한정된 지역만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인원과 넓은 연구대상을 포함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 사회화 연구가 미미한 현실에서 부모의 정서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탐색하고, 부모의 정서 규제와 아동의 정서 표출 규칙 이해와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이런 결과는 정서 발달과 정서 지도는 물론 부모교육과 아동상담 실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1) 박성연 (1998). 영아기 정서성 및 부모의 양육행동에 따른 3세 아동의 행동억제. *대한가정학회지*, 제 36권 4호, 19-33.
- 2) 최정윤 (1994). 정서와 정서 표현에 대한 아동의 이해.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논문.
- 3) Block, J. H. (1979). Another look at sex differentiation in the socialization behaviors of mothers and fathers. In J. Sherman & F. L. Denmark (Eds.), *Psychology of women: Future directions in research* (pp.29-87). New York: Psychological Dimensions.
- 4) Buck, R. (1984). *The Communication of emotion*. New York: Guilford.
- 5) Campos, J. J., Campos, R. G., & Barrett, K. C. (1989). Emergent themes in the study of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93, 774-786.
- 6) Cole, P. M. (1986). Children's spontaneous control of facial ex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309-1321.
- 7) Davis, T. L. (1996). Gender differences in masking negative emotions: ability or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1, 660-667.
- 8) Demham, S.,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 928-

- 936.
- 9) Ekman, P., & Friesen, W. (1975). *Unmasking the fac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10) Fabes, R., Eisenberg, N., Karbon, M., Carlo, G., Schaller, M., & Miller, P. A. (1991). The relations of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practices to children's vicarious emotional responding. *Child Development*, 62, 1393-1408.
 - 11) Friend, M., & Davis, T. L. (1993). The appearance-reality distinction: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and affective domains. *Developmental Psychology*, 29, 907-914.
 - 12) Gardner, H. (1982). *Devermental Psychology*(2nd ed.), Boston: Little, Brown.
 - 13) Gnepp, J., & Hess, D. L.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verbal and facial display rules. *Devermental Psychology*, 22, 103-108.
 - 14) Gross, D., & Harris, P. L. (1988). Understanding false beliefs about emo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1, 475-488.
 - 15) Harris, P. L., Donnelly, K., Guz, G. R., & Pitt-watson, R. (1986).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real and apparent emotion. *Child Development*, 57, 895-909.
 - 16) Harris, P. L., Johnson, C. N., Hutton, D., Andrews, G., & Cooke, T. (1989). Young children's theory of mind and emotion. *Cognition and Emotion*, 3, 379-400.
 - 17)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Oxford: Blackwell.
 - 18) Harris, P. L. (1994). The child's understanding of emotion: Developmental change and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3-28.
 - 19) Jaffe, Michael.(1997). *Understanding Parenting*. Bacon.
 - 20) Malatesta, C. Z., & Haviland J. M. (1982). Learning display rule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 expression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3, 991-1003.
 - 21) Masters, J. C., & Carlson, C. R. (1984). Children's and adult's understanding of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states. In C. Izard, J. Kagan, & R. Zajonc (Eds.),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2) Miller, P., & Sperry, L. (1987). The socialization of anger and agg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33, 1-31.
 - 23)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330-35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4)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rmental Psychology*, 15, 424-429.
 - 25) Saarni, C. (1981). *Emotional experience and regulation of expressive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Boston.
 - 26) Saarni, C. (1984). An observational study of children's attempts to monitor their exp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5, 1504-1513.
 - 27) Saarni, C. (1985). Indirect processes in affect socialization.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pp.187-209). New York: Plenum.
 - 28) Saarni, C. (1989). Children's understanding of strategic control of emotional expression in social transactions. In C. Saarni & P. L. Harris (Eds.),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pp.181-20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9) Underwood, M. K., Coie, J. D., & Herbman, C. R. (1992). Display rules for anger and aggression in school-age children. *Child Development*, 63, 366-380.